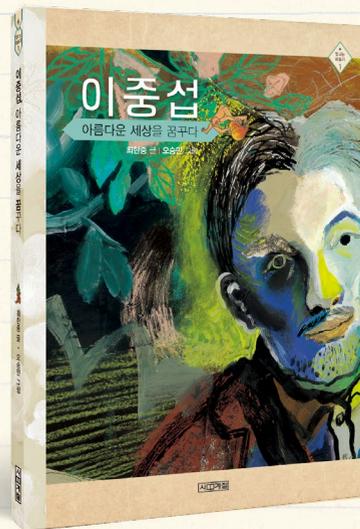


이중섭,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한중 글 | 오승민 그림 | 156쪽

〈아빠 사랑해요〉
초등학교 6학년 미술 교과서 3단원 10쪽

이중섭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는 소, 주작, 봉황, 게, 물고기, 황새, 오리, 복숭아, 참새, 까마귀,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그림의 대상이 아이들과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뛰놀고 즐거워한다. 그는 800점 가까이 작품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그의 그림은 김환기와 박수근에 이어 세 번째로 값이 비싸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작품 한 점 제대로 팔아 본 적이 없고, 일본인 아내와 두 아들은 변변한 방 한 칸 없이 지내야 했다. 더구나 그는 한국전쟁 이후 식구들과 헤어져 살다 병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만다.

(학습 목표)

이중섭은 1916년 4월 10일에 태어났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여섯 해째가 되던 해이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을 살아간다. 그리고 1956년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난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마흔한 살이었다.

이중섭은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취를 남긴 화가이다. 이중섭 하면 보통 '소를 그린 화가'를 떠올린다. 그만큼 그는 소를 많이 그렸다. 우리는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나 다른 여러 교과서에서 이중섭의 소 그림을 만나 볼 것이다. 그만큼 이중섭 작품에서 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또한 이 책에서 이중섭이 그린 여러 소 작품을 볼 것이다. 그는 이 소 그림에서 진정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이것을 깊이 헤아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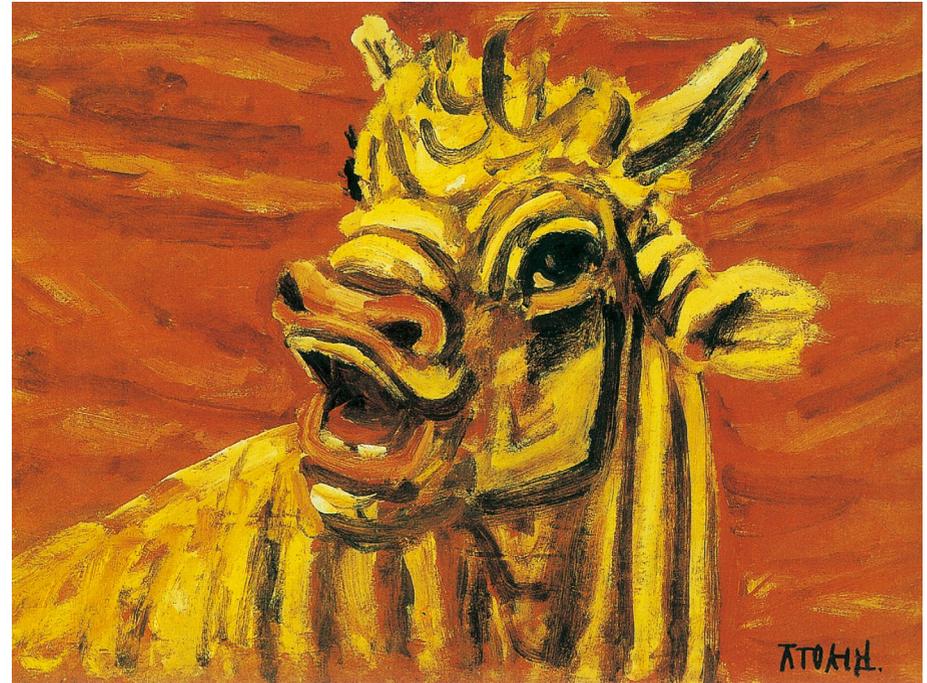
- ◎ 이중섭의 불행한 삶과 예술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자.
- ◎ 그의 그림 가운데 소 그림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그는 왜 소에 집착한 것일까?
- ◎ 화가가 선택하는 붓은 화가가 대상을 대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중섭은 가는 붓 대신 뭉툭하고 큰 붓을 선택했다. 그는 왜 뭉툭한 붓을 선택했을까?
- ◎ 예술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직관'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독전 활동)

이중섭의 <황소>(1953)를 감상해 보자.

-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이중섭의 <황소>(1953) 이미지를 구해 화면으로 보여 준다.
 - 아이들에게 1분 정도 주고, 마음을 모아 살펴보게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한 사람씩 말하게 한다. 이때 아이들에게 레이저 포인트를 쥐어 주어 가리키면서 설명하게 하면 좋다.
 - 선생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어 간다.
 - 한 그림을 놓고도 아이들은 수많은 것을 찾아낼 것이다.
 - 열 사람 정도 발표하면 잠깐 멈춘 다음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 지금 황소는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 황소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황소 오른쪽 뿔은 왜 저럴까, 황소 왼쪽 귀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황소의 몸을 밧고랑 무늬로 그렸을까? 지금 때는 언제쯤일까, 이 울음은 기쁨의 울음일까 아니면 슬픔의 울음일까, 이중섭은 이 소 그림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붓질을 보면 섬세하게 그리지 않고 뚱뚱한 붓으로 쓱쓱 그렸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아이들의 느낌을 이끌어 낸다. 이때 객관의 자리에서 감상자 처지가 되어야 보이는 것도 있고, 자신이 황소가 되어야지만 그 느낌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아이들의 느낌을 살리고 끌어내야 한다.



<황소>, 1953~1954

▶ 이 그림은 가로 50센티미터쯤 되고,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에서 54년에 그린 것으로 짐작한다. 때는 저녁노을이 붉게 지는 해질녘이다. 만약 한낮이었다면 배경은 파란 하늘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자연스럽지 않고 엉뚱한 그림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왼쪽 뿔은 부러졌고, 아랫니는 두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가 울 때 이렇게 입이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왜 밧고랑 같은 스프라이트 무늬로 그렸을까. 그 까닭을 찾아내는 것이 이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 이것은 울음소리와 관련이 있다. 아마 아이들은 그 까닭을 단박에 찾아내고 말 것이다.

(독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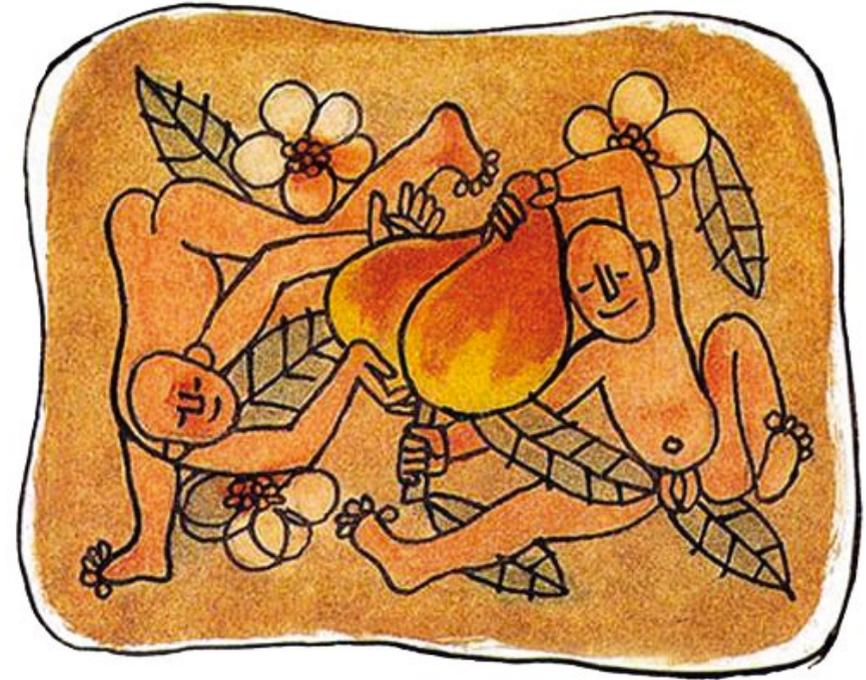
〈아이와 복숭아〉(1950년대) 따라 그리기

→ 2B 연필과 수채화, 스케치북을 준비한다. 꼭 스케치북이 아니더라도 하얀 바탕 종이면 충분하다. 낱장에 그리려면 스케치북 도화지 면에 투명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양손이 자유롭다. 연필은 진한 것이 좋다. 하지만 2B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당연히 샤프는 안 된다.

→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때 선생님은 지우개를 쓰지 못하게 한다. 선이 잘못 나갔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바로잡아 그리게 한다. 나중에 지우개를 쓸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미리 말해 주자.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주는 게 좋다. 마음을 집중하고 '쓱쓱' 자신 있게 그리게 해야 한다. 시간은 3~5분 이내로 줘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직관'을 끌어낼 수 있다.

→ 다 그리면 지우개로 잘못 그은 선을 지우게 한다.

→ 색은 자기 느낌대로 칠하게 하면 된다. 꼭 복숭아 빛이 아니더라도 좋다. 파란빛과 빨강을 써도 좋다. 검은빛도 좋다. 자기 느낌대로 색을 골라 칠하게 한다.



〈아이와 복숭아〉 1950년대

▶ 이중섭은 1945년 5월 일본 유학 시절에 사귀 마사코와 원산에서 결혼을 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 첫아들을 낳지만 이내 죽고 만다. 그는 아이의 관 속에 천도복숭아를 손에 쥔 아이 그림을 그려 넣는다. 예부터 복숭아는 장수를 뜻한다. 옛날 동방삭이란 사람이 여자 신선 서왕모가 사는 낙원에서 복숭아를 세 개 훔쳐 먹고 엄청나게 오래 장수를 누리고 마침내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는 친구 아들의 생일날에도, 친구가 아파 누웠을 때도 천도복숭아 그림을 그려 선물한다.